

보도시점 : 2025. 9. 21.(일) 11:00 이후(9.22.(월) 조간) / 배포 : 2025. 9. 19.(금)

## 자율주행 산업 도약, 현장 목소리로 시작합니다

- 24일 2차관 주재로 토론회 개최... 규제 혁신부터 운수업계와의 상생까지 산업계·학계·시민단체 등 폭넓은 현장 목소리 들어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운덕)는 9월 24일(수) 오후 서울에서 강희업 제2차관 주재로 토론회\*를 열고,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정책개선 방향을 논의한다.
  - \* 주최 : 국토교통부 / 주관 :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공동
- 이번 토론회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‘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’(9.15)의 후속조치로,
  - \*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(9.15)  
“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,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”
    - ①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
    - ②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
- 당시 논의된 주제를 바탕으로 업계의 현안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다시 짚고, 다양한 현장 주체가 참여해 자율주행 산업 성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.
- 토론회 주요 안건은 ▲규제 합리화 방안, ▲자율주행 서비스(안전관리, 관제 등) 제도화 방안, ▲해외 자율주행차량의 국내 진입, ▲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따른 운수업계(버스·택시·렌터카 등) 협업 방안이다.
- 토론에는 국토교통부, 기획재정부, 산업통상자원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서울특별시, 자율주행 기업, 유관기관, 학계·전문가 단체, 시민단체가 함께 한다.

- 버스와 택시, 렌터카 업계 등 현장 이해관계자들도 폭넓게 참여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.

※ 참석기관 (9.19 기준 참석 예정 기관으로, 추후 변동 가능)

- 자율주행 관련 기업(10) : Autonomous A2Z, SOCAR, SUM, SWM, 라이드플렉스, 마스오토, 모라이, 카카오모빌리티, 포니링크, 포티투닷
- 운수단체(4) :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,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,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,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
- 유관기관·시민단체·학계 등(9) : ITS Korea,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, 한국과학기술한림원, 한국교통안전공단, 한국교통연구원, 한국자동차모빌리티안전학회,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, 한국은행, 한국자동차연구원

○ 또한,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\*를 통해 생중계되어, 관심있는 국민들도 실시간으로 의견도 제시하고 논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.

\* 국토교통부 유튜브 채널 : [www.youtube.com/@korealand](http://www.youtube.com/@korealand)

□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“자율주행 산업은 국민 생활과 교통의 편리함을 넘어 우리 경제의 진짜 성장을 위한 핵심 산업”이라며, “그렇기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세심하게 살피고, 더 가까이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”하다고 강조했다.

○ “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, 이번 현장 토론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”이라고 덧붙였다.

담당 부서	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임월시 (044-201-3847)
		담당자	서기관	이성훈 (044-201-3848)
			사무관	남일 (044-201-3851)
			주무관	김민지 (044-201-3934)